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총동창회 ‘골프대회·송년의밤’ 성료

“회원 친선 도모·다양한 봉사활동 큰 보람”

1-12기 원우 등 80여명 한자리
담양레이나CC서 신페리오 방식
차기 회장 7기 차의철 회원 추대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총동창회(회장 이정배)가 친선골프대회 및 송년의 밤을 갖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7일부터 12일까지 원우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담양레이나CC에서 친선골프대회가, 오후에는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송년의 밤이 이어졌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친선골프대회에서 김진숙 회원이 니어리스트를, 김영성·조분자 회원이 각각 남녀 롱기스트로 선정돼 부상으로 정육세트가 증정됐다. 이정배·김정옥 회원은 각각 남녀 메달리스트, 차의철·김인숙 회원은 신페리오 남녀 우승을 차지해 트로피와 고급 골프백 및 보스톤백 세트를 부상으로 받았다.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송년의 밤 행사에서는 지난 2년동안 총동창회 활동을 담은 영상 이 상영되고 총동창회 간부들에 대한 공로패가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총동창회는 지난 12일 담양레이나CC에서 친선골프대회를 열고 오후에는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17일부터 12일까지 원우 등 80여명이 참석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여했다. 또 결산보고, 공연, 기수별 노래자랑, 경품 및 행운권 추첨 등도 이뤄졌다.

이날 원우들은 차기 총동창회장으로 7기 차의철 회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정배 총동창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

여와 성원으로 2년 동안 총동창회가 친선 도모와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유대 강화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는 “총동창회의 체

제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정감을 공유하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광주매일신문도 가족같은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전남도, 노인돌봄 종사자 건강증진대회 성료

전남도는 13일 “노인돌봄 종사자 건강증진대회”가 지난 12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건강증진대회에선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는 전남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 50여명이 참석해 힐링강연과 문화예술공연 등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의 시간을 가

졌다. 노인 돌봄 업무에 공로가 큰 종사자 2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개그맨 이승윤이 ‘마음을 치유하는 회복 에너지’를 주제로 강의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했으며, 문화예술공연으로 마련된 가야금공연은 종사자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김재정기자

‘광주 교육의 현장, 감동의 기록 사진전’ 개막

광주교육의 현장을 담아낸 사진전이 지난 12일 서구 도시철도 상무역에서 개막했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회장 김진수)는 이날 ‘광주 교육의 현장, 감동의 기록 사진전’을 열고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개막식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봤다. 이 교육감은 김진수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교실 안팎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을 세심히 살폈다.

이번 전시는 수업장면뿐 아니라 체험학습, 봉사 등 활동영역을 넓혀온 교육현장을 기록했다.

김진수 회장은 “학생들의 열정과 성장을 사



전에 담아 시민과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진전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며, 이후 쌍촌역 등 다른 역사에서도 순환 전시될 예정이다.

/김애리 기자

농협은행 전남본부, 순천대 발전기금 3천만원 기탁

국립순천대학교는 13일 “전남 NH농협은행 전남본부가 대학발전기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는 국립순천대 이병은 총장과 문승태 대외협력부총장을 비롯해 NH농협은행 류종필 전남본부장, 강성숙 순천대지점장이 참석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의 가치와 상생의 의미를 공유했다.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도내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학생 해외봉사 및 국제개발협력(ODA) 교육 지원, 어르신·취약계층 대상 나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지역 출신 인재 22명을 신입 행원으로 채용하는 등 청년 고용 확대와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광양=양홍렬 기자

목포·무안 두리봉사회, 취약계층 성금 전달

목포·무안 두리봉사회는 13일 목포 원산·동명·삼학·상동에 거주하는 조순가정 등 11세대에 각각 20만원씩 총 22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2016년 4월 출범한 두리봉사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목포·무안지회 소속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연 4회 이상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매년 목포시와 무안군의 추천을 받아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조순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금과 연탄을 전달하며 ‘지역사

랑 운동’을 실천해왔다.

이와 함께 유달산둘레길, 평화광장, 북항 노을공원 등에서 쓰레기줍기와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안문기 두리봉사회 회장은 “취약계층 지원과 환경보호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며 “앞으로도 연간 4회 이상 지역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LH 광주양산 ‘입주민 고추장 만들기 체험’ 호응

LH 광주양산 주거행복지원센터는 “최근 북구 양산주공아파트 103동 앞 광장에서 ‘입주민과 함께하는 고추장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는 LH 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 100여명의 주민이 1·2·3팀으로 나뉘어 고추장 키트를 활용, 세대별 한 통씩 고추장을 담갔다.

황승하 광주양산 주거행복지원센터장은 “주민 모두가 즐겁게 참여해 보람됐다”며 “내년에



는 된장 만들기 체험으로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장흥경찰, 119 현장대응단 합동소방훈련

장흥경찰서는 지난 12일 청사 내 화재 발생에 대비해 장흥소방서 119현장대응단과 ‘2025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경찰서 직원 40명과 장흥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3명, 소방차 1대가 참여했다.

훈련은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신고 ▲인명 대피 ▲소화기·소화전 사용 ▲중요문서 반출 ▲응급조치 및 환자 이송 ▲소방차를 이용한 화재 진압 등 단계별 실습으로 진행됐다.

박흥원 장흥경찰서장은 “화재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담양경찰, 어르신 범죄예방·교통안전교육

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담양노인회 노인대학을 방문해 범죄 예방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어르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수근 담양경찰서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실질적인 예방 요령을 전했다.

양 서장은 “보이스피싱은 낯선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된다”며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반드시 의심하고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싱 예방 벨소리 설치 캠페인’을 소개하며 휴대전화나 유선전화의 벨소리를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등 경고음으로 설정해두면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험 요령, 아광조끼 착용의 중요성 등 실생활 중심의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공유했다.

양수근 서장은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에 맞는 맞춤형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피싱 예방 벨소리 설치 운동과 같은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확대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임민자 ㈜넷온 회장 ‘올해의 아너 대상’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3일 “임민자 ㈜넷온 회장은 ‘2025 아너 소사이터티 회원의 날’ 행사에서 올해의 아너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07년 출범한 아너 소사이터티는 모금회에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약정한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이다.

지난 11일 서울 드래곤시티 컨벤션타워에서 열린 2025 아너 소사이터티 회원의 날 행사는 그간의 여정을 기념하고 나눔 성과와 기부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아너 소사이터티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인공지능 네트워크 회사인 ㈜넷온의 임 회장은 2017년 광주 아너 소사이터티 70호 회원으로 가입해 5년 동안 총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2024년 2월에는 아들인 김양선씨가 광주 173호 아너 소사이터티로 가입해 광주 최초 ‘모자(母子) 아너’로써 기부 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임민자 회장은 “기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제 삶에도 큰 기쁨과 원동력을 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결혼

▲신인수(장성 신약국)·정선미씨 차남 희진(논산 참약사대온약국)군, 박승호(이주경제 광주취재본부장)·서미애(서울신문 광주전남취재국장)씨 차녀 세원(대전 건강건강약국)양=16일(일) 오후 12시30분 드레스 웨딩을 신관 지젤홀 1층(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최규룡(기아 오토랜드 광주)·김춘애씨 장남 대현(살레시오고 교사)군, 오형수·강성란씨 딸 신영양=29일(토) 오후 3시 드레스 웨딩을 본관 4층 라비엔홀(광산구 도천동 147-29).

▲문영호·유신임씨 장남 창진군, 신현구(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김옥희씨 장녀 해경양=30일(일) 오후 3시 서울대 연구공원 웨딩홀(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02)878-0465, 010-3721-8259).